

양극화 시대 불교종립대학 신입생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

鄭 貴 連 · 金 世 坤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대에 불교종립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과 삶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가치체계와 인생의 목적, 정서적 특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시대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문제, 내재적 가치의 소외와 외재적 가치의 집중에 따른 문제, 사회 불안정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의 양태를 보였고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취업준비, 학벌에의 집착, 역할혼미 등의 양태를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종립대학에서 시행되는 불교교육은 불교에 관한 교육과 불교적 교육의 이원적인 역할을 잘 구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불교교육을 통해 세상의 가치에 물든 거짓 나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불교교육은 세계의 중요 종교와 불교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교범대로 실천궁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교교육의 직접적인 교육대상인 불교종립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불교종립대학, 대학신입생, 양극화, 불교교육, 역할과 방향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6년 11월4일, 선문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I. 들어가며

“양극화”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일상적이어서 친숙하기까지 한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막상 그 뜻을 정확하게 정의하려들면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고 보편화되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어느 정도 고착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97년 IMF위기를 거치며 상당수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사회구조가 양극화되었고 대량실직과 고용기회의 감소, 분배소득의 악화, 소득 불평등의 증가, 빈곤의 심화 등 다양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점차 정치적·의식적 측면으로, 궁극에는 국민의 정서적·심리적 측면으로까지 영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IMF위기 전후에 출생하였다. 이들의 부모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세대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출생 시부터 양극화라고 하는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의 대학생활 속에서 그들이 감지하고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교육 수혜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교육의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과 삶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가치체계와 인생의 목적, 정서적 특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불교종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 신입생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심리적 상태 및 대학생활 전반에서 보이는 그들만의 삶의 양태와 가치 그리고 지향점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교육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양극화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대학 신입생들의 생활 양태를 연구하고자 신입생들의 체험과정과 학사지도 면담주제를 분석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양극화 시대에 불교종립대학 신입생 대상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대학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1. 양극화 개념 정의와 한국사회 양극화의 특징

1)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란 용어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시대적 측면 등 각계각층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양극화(bi-polarization)의 개념은 사전적으로는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을 말한다.¹⁾ 소득분포 상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되어 집락화(集落化)가 발생하는 것²⁾으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분포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양 극단으로 집중되는 현상, 특히 중산층의 몰락과 이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극화의 다양한 의미들을 정리해보면 양극화는 다음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가 상이한 성격을 지니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지면서 양 극단으로 이동하여, 집단 간 격차가 커지고 정치적 혹은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 둘째, 성격이 다른 집단 간의 격리 거리가 멀어져서 상호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셋째, 사회가 상호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리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집단의 수가 점점 줄어들지만 그 집단의 힘은 더욱 커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넷째, 사회 전반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다섯째, 중산층이 소멸하고 단순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 이밖에 두 집단에서 집단 내 동질성이 보다 강화되는 현상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³⁾

2) 한국사회 양극화의 특징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의 양극화 진행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빨라서 그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양극화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자원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양극화로 인한 경제문제는 실업, 청소년 문제, 자살, 이혼, 범죄,

1) 정재각,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2호, 2006, 79쪽.

2) M. C., Wolfson, “When Inequality Diverge”, *The American Economy Review*, 84, 1994, pp.353.

3) 이재철,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9집, 제 2호, 2009, 239쪽.

계급 재생산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⁴⁾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는 단지 소득 양극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공간이 분리되고, 출신학교가 분리되고, 교우 관계가 분리되고, 취미가 분리되고, 결혼 배우자들이 분리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내부에 극단적으로 분리된 두 집단, 두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매우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⁵⁾ 1997년 IMF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대와 중산층의 몰락 등으로 인해 계층 간 분리와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분리와 간극은 사회적 경계선으로 굳어져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세습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교육비 비율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이후 대학진학율과 내신등급, 수능성적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에서 불평등은 이제 대물림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교육은 한동안 기회 균등화 기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와 대학서열체제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를 이어 확대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었다.⁶⁾

2. 양극화와 불교

1) 고(苦)

양극화 현상을 부처님이 보셨다면 아마도 ‘苦’라는 단어로 정의 내렸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고 고통, 병듦고 고통, 죽음도 고통(生老病死), 우울과 비탄과 근심도 고통(憂悲惱苦),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고통(怨憎會苦), 또한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고통(恩愛別離苦),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함도 고통(所欲不得苦)⁷⁾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양 계층 모두 우울과 비탄, 근심, 원망, 미움 등의 부정적 정서가 만연한 현대 사회 전반적인 상황은 분명 불교에서 말하는 ‘苦’이다.

근본적인 고통은 세상의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 명성과 명예를 가지려고 욕심내고, 이것들을 갖지 못해 분노하는 것에서 온다고 보는데 이러한 욕심과 분노는 세상의 이

4) 이재철, 위의 글, 238쪽.

5) 김원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제26집, (서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224쪽.

6) 정성진,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해체」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4호, (진주:사회과학연구원, 2013), 6쪽.

7) 김형록, 「고집멸도의 상담 및 심리치료적 이해」 『한국 선학』 제27권, 2010, 313쪽.

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리석음이 가장 근원이라고 본다. 이 어리석음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으키는 생각과 행위를 만들어 낸다.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12연기 중 자각의 부재인 무명에서 찾는다. 무명이 번뇌를 발생시키고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는 실재하는 고통이며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癡),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욕심냄(貪)과 화냄(瞋), 그리고 자각의 부재인 무명(無明)인 것이다.

2) 삼독심(三毒心)

불교적 입장에서는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가진 자는 더욱 가지려는 탐욕심(貪)에 불타고 덜 가진 자는 가진 자에 대하여 증오와 분노(瞋)를 불태우고 결국 이 모두가 어리석음(癡)에서 비롯됨을 알지 못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탐(貪)심은 결여, 욕구, 원함의 상태로 항상 충족을 추구하며 만족을 지속시키고자 하지만 그 욕구는 본래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진(瞋)심은 싫어함, 혐오, 성냄으로 탐심에 대한 반응으로 감각적 쾌락, 욕망이나 갈애에 대한 반작용이다. 치(癡)심은 무명, 무상-고-무아에 대한 무지, 사성제에 대한 무지, 연기와 공, 무아에 대한 무지이다.⁸⁾ 즉 양극화 현상을 바라보는 불교의 입장에서 양극화 현상은 가진 자는 더욱 더 많이 가지려 끝없이 욕심을 내고 덜 가진 자는 자신의 상태를 싫어하고 자신과 타인, 사회에 화를 내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자신이나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가정하여 자신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중 하나로 구분 짓고, 대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분별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의 부재 등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한다.

탐진치는 하나의 작용으로 서로 분리된 세 가지가 아니다. 쾌락추구의 탐심과 쾌락추구 과정에서 좌절/분노/적의의 진심은 치심을 전제하는 마음의 한 작용이다. 치심으로 인하여 쾌에 환락하고 집착하고 그 반대의 것에 대해서는 혐오, 분노하는 것이다. 따라서 탐진치는 서로 수반하여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은 치심이다. 치심이 사라지면 탐심과 진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⁹⁾ 결국 어리석음으로 분별이 생기고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는 욕심을 내고 갖지 못하면 상심하고 분노하고, 증오한다. 치심이 근원적인 것이라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방법으로도 치심의 지멸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8) 안옥선, 「불교윤리에서 부정적 성향의 제거」 『불교학연구』 제26호, 2010, 253쪽.

9) 안옥선, 위의 글, 254쪽.

3) 무명(無明)

무명이란 일체의 무실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오온(五蘊)은 오취온(五取蘊)이라고도 하는데 다섯 개의 모임, 다발이라는 뜻으로 인간존재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모임이나 다발이라는 의미이다. 색(色)은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현상을, 수(受)는 괴로움이나 즐거움 등을 느끼는 감정작용, 상(想)은 감정에 따른 인식작용, 행(行)은 일체의 의지적 작용, 식(識)은 대상을 총체적으로 분별하는 지각작용이다. 즉 인간은 눈으로 좋아하는 빛깔을 보고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빛깔을 사랑하며, 기억한다. 계속해서 인간의 식(識)은 과거에 대해 욕망하고 물들고 집착하며 발전해 나가며 미래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기를 마음으로 즐기게 되는 발전 구조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와 인간존재를 변치 않는 불변의 그 어떤 존재로 상정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은 주관과 객관, 육체와 정신이 따로 독립된 실체처럼 간주한다. 그러므로써 인간의 욕망과 집착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 붓다는 오온설을 통해 실체론적 자아관념을 파기하고자 하였다. 욕망의 대상이나 욕망하는 자아를 실체로 받아들이는 관념은 모두 의식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⁰⁾ 이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즉 오온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명(無明)이다.

양극화 현상에 대입해 보면, 양극의 기득권층의 경우 자신이 가진 부와 지위, 특권이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은 그것을 소유한 실체적인 존재로 생각되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집단 내 영향력과 동질성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배타성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계층에서는 부재로 인한 상실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모두가 욕망하는 대상과 욕망하는 자신을 실체로 받아들인 결과라 할 것이다.

3. 불교종립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이해(지방의 'D'불교종립대학 사례)

대학신입생들은 대학 입학부터 취업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안고 대부분의 시간을 양질의 직업군에 취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렇게 대학진학의 목적이 달라짐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양식이 많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양극단의 어디에 속할 것인지가 대학생활을 통해 결정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학점이나 스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인관계나 학과 생활, 동아리 활동을 우선 선택하고 그 외 외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대부분 1997년 생으로 IMF위기를 겪는 동안 출생하고 IMF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심신에 체득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입생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불교교육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0) 조준호, 「무명(無明)과 공(空)」 『불교학연구』 제24집, 2009, 198쪽.

1) 대학신입생체험을 통한 이해

출생과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 심각하게 양극화를 겪고 있는 현 대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신입생들의 ‘대학 신입생 체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대학에 처음 입학해서 모든 것이 낯선 신입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학 신입생 체험’을 알아보기 위해 재학생 중 대학 신입생으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세이 형식의 체험 후기 형식의 자료를 수집하여 van Manen의 연구방법과 Giorgi의 연구방법을 절충하여 분석하였다.¹¹⁾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은 인식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에 대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전체 연구를 끌고 가는 틀로 적용되었고 Giorgi의 연구방법은 기술된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주제 분석은 전체문장읽기, 의미단위 구분하기, 주제진술 분리, 언어의 변형, 본질적 주제결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대학 신입생의 ‘신입생 체험’의 본질적 주제¹²⁾

‘신입생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대학 신입생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주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먼 곳만 바라본다
	시간은 과거로만 흐른다
	과거 때문에 흔들리는 현재
‘익숙함’과의 이별	변화된 상황에 당황하고
	대학친구란 어떤 존재일까?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가 된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	세상이 내 것만 같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붓물이 터지듯 자유로워지다	주어진 자유가 부담스럽다
	부표처럼 흘러간다
책임감으로 무거워지는 마음	이제 미래를 책임질 나이
	미래가 고민스럽다
경험이 알려준 진실	전공수업이후 알게 된 나의 흥미 적성

11) 정귀연,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체험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2쪽.

12) van Manen(1990)은 ‘그것 없이는 그 현상이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일 수 없는 측면이나 성질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 주제’라고 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언어변형 이전의 원 주제로 환원하는 작업과 주제도출 이전, 의미 단위로의 환원작업 등을 오가며 주제와 의미단위, 그리고 언어변형들이 드러내는 현상에 대한 답과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 된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현재, 대학 신입생으로서의 삶이 버거운 학생들은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대학생 활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로는 재수나 편입, 캠퍼스 간 이동을 꿈꾸며 현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뿌리 깊은 기원을 가진 심리적 외상경험은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

“...나는 달라진 것이 없는 그냥 휴학과 자퇴생가에 휩싸여 있는 학생이었다. 일학년밖에 안됐지만 1학기 내내 나쁘게 말하자면 너무 학교가 싫었고, 힘들었다. 난 이런 곳에서 적응할 수 없다고 항상...좋은 학점을 받아 서울에 있는 본 캠퍼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던 대학생활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이 아닌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고등학교 때의 과거로 살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출발선에 늦게 섰다는 열등감도 있었지만 정말 근본적인 열등감은 가정사에 있었다...”

< ‘익숙함’과의 이별>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중·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 대학생 활이나 대학 공부, 대학에서의 인간관계 등 대학 신입생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이 그동안 익숙했던 삶이 아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끼게도 하고, 때로는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친구, 선후배 관계로 인해 진정한 인간 관계가 있을까하는 회의도 들게 한다. 특히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고향을 떠나 ‘경주라는 낯선 곳에서 자취나 하숙,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익숙함 ‘에 대한 갈망이 클 수 있다.

“... 항상 선생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면 그대로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 버스가 오는 시간마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주, 사람과 친해지기도 어렵고 외로운 경주...”

“... 처음으로 집과 멀리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나는 두발자전거를 처음 탄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았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대학생활, 대학공부, 대학에서 맺게 된 관계들에 집중하게 된다. 가끔 알 수 없는 낯선 환경이 주는 불안에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그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이는 결국 첫

단추를 잘 꿰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 학기 초기에 들뜬 마음으로 대학을 와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 학사제도와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공부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덤비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 대학생활을 엉망으로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에 이런 큰 목표를 가슴속에 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붓물이 터지듯 자유로워지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달단계가 바뀌게 된다. 즉, 연령은 성장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사회적 신분은 한 단계 진화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가뒀던 많은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신입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갑자기 주어진 엄청난 자유를 마냥 즐기려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그런 자유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우, 막연한 부담감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결국 이런 모든 반응을 종합해보면 대학 신입생은 외적통제에 익숙했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내적통제력을 함양해서 진정한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조우하는 시기이다.

“...처음해보는 대학생활에 본능대로, 이끌리는 대로 즐기만 했습니다. 돈만 축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고 3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왔다. 막상 대학에 오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으로 하루를 보내야하는지 많이 헤매었다...계속 놀고 있는 모습에 너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위축되기만 하였습니다...”

<책임감으로 무거워지는 마음>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는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변에서 갑자기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신입생들은 이런 저런 요구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에 고민이 깊어진다.

“...교수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동기들, 선배들까지 장래희망을 묻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 수 없다는 장녀의 책임감이란 고집이 늘 발목을 잡았다. 올해는 한 술 더 떠서 ‘성인이기 때문에’라는 무게감도 실렸다...”

<경험이 알려준 진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거는 큰 모험이며 신앙이다. 그런 큰 결정을 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막상 입학한 후 전공수업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한다. 때로는 학생들은 전공 학과에서 다른 전공에 관심이 생기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며 전과나 편입, 복수전공을 고민하게 된다.

“...00 전공 수업을 듣다보니 ‘나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00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학기 동안 학과에 관련된 기초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잘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로 전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2) 2015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신입생 체험’에 대한 해석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양극화 영향과 관련하여 ‘대학 신입생 체험’의 본질적 주제를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분류해 보았다(<표 2>참조).

<표 2> ‘대학 신입생 체험’에 대한 본질적 주제의 범주구성

범주구성	본질적 주제
회귀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익숙함’과의 이별
목표 (내재적 가치 소외와 외적가치에 대한 집중)	첫 단추를 잘 꿰고 싶다
	붓물이 터지듯 자유로워지다
미래 (불확실성과 불안)	책임감으로 무거워지는 마음
	경험이 알려준 진실

대학 신입생들은 부모로부터 아직 분리-개별화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보다는 과거, 익숙하고 안전한 심리적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특징,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에 집중되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사회 경제적 유연화의 영향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 등으로 크게 분류 가능하였다.

2) 학사지도 면담주제를 통해 본 대학 신입생들의 고민

(1) 신입생 학사지도 면담¹³⁾과 면담주제 분류

조사대상자는 2015학년도 2학기 학사지도 면담 학생들이며 이들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54.7%(792명), 여학생이 45.3%(656명)를 차지하였다. 면담유형은 1:1 면담이 82.7%(1,251명), 1:2 면담이 17.3%(261명)로 나타났다. 면담횟수는 1회 면담이 87.0%(1,324명), 2회 이상이 13.0%(19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표 3> 면담대상 일반현황

성 별		면 담 유 형		면 담 횟 수	
남	여	1:1 면담	1:2 면담	1회 면담	2회 이상 면담
54.7%(792명)	45.3%(656명)	82.7%(1,251명)	17.3%(261명)	87.0%(1,324명)	13.0%(198명)

학사지도 면담 주제별 순위를 살펴본 결과 신입생들은 캠퍼스 간 이동에 관한 주제로 면담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캠퍼스 간 이동의 신청 시기 및 자격조건, 학과별 선발정원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진로계획과 장학금, 공부방법, 복수전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표 4> 학사지도 면담 주제 순위

내 용	빈도(명)	비율(%)	순위
캠퍼스 간 이동	164	11.0	1
진로계획	129	8.6	2
장학금	128	8.6	3
공부방법	117	7.8	4
복수전공	115	7.7	5
해외교환학생	92	6.2	6
휴복학	91	6.1	7
전공선택	86	5.8	8
전과	64	4.3	9

13) 우리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사지도 교과목은 대학신입생의 대학생 활 적응을 목적으로 1학기, 2학기 「동국인의 자기계발1」, 「동국인의 자기계발2」 강의와 1:1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14) 2015년 에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신입생을 위한 학사지도 운영상과 및 과제』 중 저자가 집필한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수강신청	58	3.9	10
목표찾기	57	3.8	11
계절학기	49	3.3	12
교직이수	42	2.8	13
시험준비	42	2.8	14
봉사학점	38	2.5	15
친구관계	30	2.0	16
졸업요건	28	1.9	17
학점교류	28	1.9	17
시간관리	28	1.9	17
이성관계	15	1.0	20

(2) 신입생 면담 주제 분류와 해석

학사지도 면담 주제를 범주화할 경우 대기업이나 전문직, 공무원 등 취업을 통해 상위 클래스에 진입 또는 그 지위를 유지하려는 ‘취업지향범주’와 재수나 반수, 편입 등의 방법으로 서울지역 대학을 졸업하여 상위 클래스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학벌지향범주’,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이후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인생 목표, 삶의 의미, 인간관계 등에 대해 탐색을 시작하는 역할혼미’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표 5>참조).

<표 5> 면담주제로 살펴 본 대학생생활 유형

범주	내용	빈도	비율(%)
취업지향	장학금, 수강신청, 교직이수, 계절학기, 봉사학점, 졸업요건, 시간관리, 복수전공, 진로계획	615	41.2
학벌지향	캠퍼스 간 이동, 공부 방법, 휴·복학, 전과, 시험 준비, 학점교류, 해외교환학생	598	40.1
역할혼미	목표 찾기, 친구관계, 이성 관계, 전공 선택	188	12.6

이들 세 범주 중 81.3%가 속한 ‘취업지향’과 ‘학벌지향’범주는 고용의 질이 담보된 진로에로의 갈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데, 열심히 대학 성적을 올리고 외국어 공인성적을 올리고, 관련 자격증을 따고 봉사학점이나. 복수전공, 다양한 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음으로써 고급 일자리에 다가서려는 ‘취업지향범주’, 학벌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입지에 서려는 ‘학벌지향범주’나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만큼 빈곤과 양극화 실태와 그 인과적 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제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임금, 노동, 시간, 고용 등과 관련된 수량적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산물로서 빈곤화의 중심적 요인이며, 소득과 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

극화를 주도하는 문제이고, 나아가서 성장의 잠재력과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그 뿌리부터 훼손하는 핵심적 사안이다.¹⁵⁾ 따라서 대학생들은 저임금이나 고용불안정성의 가능성을 줄일 수 방법으로 높은 졸업 학점과 자격증, 복수전공뿐만 아니라 서울권 내 대학으로의 이동이나 학점교류, 편입, 해외교환학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역할혼미의 범주에 포함되는 고민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성적에 맞추거나 부모님이나 진로담당 교원의 권유에 의존해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는 고민이 많았다. 즉 주변의 권고에 따라 학교와 학과, 그에 따른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공 선택도 고민거리였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대학 친구 관계나 공부, 진로 준비, 학과생활과 이성 관계 중 어떤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대인관계도 중요한 고민거리로 나타났다.

4. 대학생의 심리적 양태에 대한 논의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대부분 1997년 생으로 IMF위기를 겪는 동안 출생하고 IMF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심신에 체득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험하는 신입생의 삶의 양태와 그들이 주로 토로하는 고민주제를 분석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학생들은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느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으며 외적 조건의 과도한 집착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 결국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으로의 회귀하는 특징들을 보였으며 이들의 고민 주제는 그러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즉 외재적 가치에 집중된 학생들은 성공을 외재적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취업하기 위한 다양한 스펙 쌓기 방법, 편입이나 캠퍼스 간 이동제도, 재수 등 학벌세탁 방법들에 대해 궁금해 했다. 역할혼미에 빠진 학생들은 익숙하고 안전한 과거로의 회귀, 이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적응노력 미흡의 양태를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나 전공에 대한 혼란을 토로하기도 한다(<표 6>참조).

<표 6> 신입생 삶의 양태와 지향점

지향점	신입생 삶의 양태
취업지향, 학벌지향	목표(내재적 가치 소외와 외적가치에 대한 집중), 미래(불확실성과 불안)
역할혼미	회귀(부모와의 분리개별화)

15) 고세훈, 「빈곤, 양극화, 그리고 불안」 『황해문화』 (인천 : 새얼문화재단, 2005), 71쪽-72쪽.

① 회귀-부모와의 분리개별화 문제

대학 신입생들은 입시위주의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대학 신입생이 되어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던져졌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졌고 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어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두 선택 간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와 얼마나 분리 독립이 이루어졌나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서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분화되어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⁶⁾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는 이유로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수행하지 못한 채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은 Mahler(1975)의 분리-개별화 개념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어머니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적이고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¹⁷⁾ 심리적 독립의 하위요인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일상사를 스스로 처리하는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부모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는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부모의 친밀감, 인정, 지지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부모에 대한 부담감, 분노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등 4가지가 있다.¹⁸⁾

부모로부터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심리적인 독립을 획득하지 못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탐색이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이지 못하고, 어려운 갈등과 상황을 대처할 능력과 자신감이 부족하며,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 낯섦과 새로움은 도전과 적응의 대상이 아닌 불안과 회피의 대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② 목표-내재적 가치 소외와 외재적 가치에 대한 집중

가치는 추상적인 포괄적 목표에 대한 인지적 표상이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의하는 원칙으로 작용(Schwartz & Sagiv, 1995)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사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루려고 하는가는 가치(value)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가치

16) 김은하, 이신영, 「여자대학(원)생의 자아분화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한 심리적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3권, 제1호, 2016, 183쪽 재인용.

17) 임수진,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2권, 제3호, 2015, 351쪽 재인용.

18) 임수진, 위의 글, 351~352쪽.

는 그 내용에 따라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되는데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선천적인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된 가치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기수용, 친화성, 공동체 감정, 신체적 건강 등은 내재적 가치에 해당하고 경제적 성공이나 외모, 사회적 인정, 명예 등 기본 심리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과 거리가 먼 외적인 요소의 획득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외재적 가치라고 한다.¹⁹⁾

많은 학자들이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 때 행복이 더 향상된다고 보고해 왔으며(Kasser, 2000, 2002; 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외재적 가치도 기본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느 정도 도구적일 수 있지만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할 때 행복에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이는 외재적 가치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더 충족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인데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모든 사람은 유기체의 통합과정을 돕는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존재의 성장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강조되고 있는데, 내재적 가치의 추구하고 달성은 이러한 욕구들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반면에,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 욕구 충족과 관련이 없거나 욕구 충족에 오히려 부정적인 활동에 개입하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신입생들은 가족과 학교, 사회 전반에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외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외모나 사회적 인정, 학벌, 좋은 직장, 경제적 성공 등을 갖기 위해 초점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외재적 가치 준거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가치매김이 곧 현재의 자기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외재적 가치 준거에 비추어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 없이 자신을 압박한다. 하나의 특정한 가치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재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진 대학 신입생들에게 내재적 가치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③ 미래-불확실성과 불안

Beck and Beck-Gemscheim (2002)은 불안이 자신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가중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시대에 절박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된다고 하였다.²¹⁾ 국가나 조직이 더 이상 개인의 생존을 담보하는 안전기지가 되지 못한다는 국가에 대한 불신 확산되면서 자신의 안위는 자신이 책임져야하는 사명이 개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불안

19) 구재선, 서은국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제29권, 제4호, 2015, 64쪽 재인용.

20) 구재선, 서은국, 위의 글, 65쪽 재인용.

21) 김문조, 박형준 (2012). 「불확실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제21권, 제2호, 2012, 612쪽 재인용.

의 토양이 되는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에서 관찰되는 유연화 과정과 긴밀히 연관된다고 하였다. 유연화는 고정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변적이고 다원적이며 분리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개념이지만 고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불안을 동반하게 된다. 즉 ‘1997 IMF위기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기업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분절화가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점점 증가하여 현재 임금노동자의 50%를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스스로 세상과 씨름하며 사투를 벌여야 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이런 불안한 시대에 던져진 대학신입생들에게 현재와 미래는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에 직면한 대학 신입생들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긴장, 조급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조기 진로결정 압력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인간들은 다양한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기초로 각각의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세대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현재 대학 신입생들의 세대 내 특징은 활기참과 행복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Diener, Suh, Kim-Preieto, Biswas-Diener와 Tay(2010)는 한국이 소득측면에서는 전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높은 물질주의를 지적했다. 물질과 같은 외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더 많은 사회비교를 하게 되어 결국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Suh(2007)는 객관적인 외적 준거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성이 행복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신입생들의 외재적 가치 추구성향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미완의 분리개별화를 원인으로 하는 과거로의 회귀성향은 결국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적 상황이 잉태시킨 우리시대의 미해결과제가 되고 말았다.

22) 구재선, 서은국, 앞의 글, 64쪽 재인용.

Ⅲ. 양극화의 시대, 불교종립대학 신입생 대상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

1. 불교종립대학 대학신입생을 위한 불교교육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체험 내용을 토대로 불교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독립을 가능하게 할 식견과 힘을 제공하고 자신에 대한 참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참 나”와의 조우

신입생 때부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자신을 다그치는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는지 등을 찬찬히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이유로 주변이나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내면화하게 되어 점점 자신의 본 모습과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불교교육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환경이 자신의 성격형성이나 자기개념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알아차리면서 ‘참 자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불교교양강좌를 통해 수행된 다양한 명상과 불교교리를 통해 그동안 자신의 일부로 지각되었던 자신을 품고 있던 초기의 조건화된 환경에서 분리-개별화가 시작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마음 세계인 허상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나’와 ‘나’가 형성한 거짓 세상을 버리면 본래 세상의 마음과 하나인 참된 본성을 찾아 살 수 있고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수행하는데 명상을 하다보면 자기가 살면서 형성해 놓은 심리적 준거 틀의 인지적 왜곡을 깨닫게 되어 인지왜곡이 교정될 뿐 아니라 역기능적 사고의 원인인 거짓마음을 버림으로써 원인자체가 제거되는 심리적 치유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명상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가면적 자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관조의 경지에 다다르며 본연의 자신을 찾고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편이다.²³⁾

2) 진정한 가치에 대한 물음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교육은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23) 윤미라,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7쪽.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된 강의를 통해 물질적 세계의 무상함을 통찰하게 되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기 속에 발굴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에 눈을 돌리게 해야 한다.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의 유한함과 무상함, 한계성을 깨달으며 외재적 가치를 향해 질주했던 자신의 삶이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도록 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묻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세상의 것은 단지 변하고 멸할 따름인데,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했다.²⁴⁾ 변함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과 나의 것에 대한 소유로서의 집착은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무상과 무아의 삼법인으로서 제시된다. 인간의 몸 역시 의지대로 지킬 수 없고 죽으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오온(五蘊)의 결합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했다 사라질 가합의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라질 것들을 가지기 위해 욕심을 내고 가지면 놓지 않으려고 집착한다.

불교교육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갖게 되기를 열망하고 갖지 못해 상심하는 대상이 얼마나 덧없고 일시적인 존재인가를 직면하게 하여 무상의 존재에 대한 열망을 통해 항상 되고 변하지 않을 자신 속에 내재된 ‘불성’을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佛性の 인간관은 자아실현이 아닌 자아초월을 교육적 은유로 삼는다. 자아초월은 고정된 자아를 부정하며 매 찰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을 촉구하는 불교의 자아관과 축적하고 소유하는 교육에서 비우고 버릴 것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육관은 욕망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⁵⁾

3) 세상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통한 불안극복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에서는 오직 식(識)만이 존재하며 식의 대상인 경계, 즉 사물은 없다는 “유식무경(唯識無境)”사상이 핵심이다.²⁶⁾ 주객의 지향적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불교 유식학적 개념이 곧 “유식무경(唯識無境)”이다. 유식무경은 곧 인식의 주관 및 대상이 각각 정신과 물질로서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존재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²⁷⁾ 이는 주관이나 인식 대상은 식의 작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식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몸과 우주 자연의 사물과 현상은 허상과 같으며, 오직 인식의 주체인 식(識)만이 모든 존재의 본질로 여겨지고 있다.

24) 中村元, 『原始佛教』(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 pp.80-81.

25) 박범석,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 교육론」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14쪽.

26) 박광수, 「마음의 본질과 현상의 스펙트럼」 『종교연구』 제66권(서울 :한국종교학회, 2012), 8쪽.

27) 한자경, 「유식 사상에 있어서 식의 지향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6권(서울 :한국현상학회, 1992), 342쪽.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 직장문제 등 대부분의 관심사들에서 자신이 통제권이 없다고 인식한다.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자신의 밖에 펼쳐져 있고 자신은 그 영향권 안에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세상이 자신을 슬프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든다고 여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교육은 세상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唯識無境’의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이론적인 학습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론에 대한 실제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을 타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행운을 바라기 전에 행운이 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다. 삶의 통제권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자신의 내적 조건에 있음을 깨달은 학생들은 세상, 미래, 타인에 대한 불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불교 종립대학 신입생 대상 불교교육의 방향

불교는 괴로움이라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교리와 실천의 체계이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론은 괴로움의 소멸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²⁸⁾

박선영 교수는 “불교교육(Buddhist education)”을 개념적으로 불교의 입장에서 교육을 수용하는 “불교의 교육(education of Buddhism)”과 교육의 입장에서 불교를 수용하는 “불교적 교육(Buddhistic education)”으로 구분하였다. 불교의 교육은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며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승려교육이나 재가의 불자교육 또는 불교의 포교차원에서의 교육 형태이다. 반면 불교적 교육은 불교교단이나 불교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념과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지혜나 자비의 함양이 가능하다.²⁹⁾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불교교육과 불교적 교육 둘 다 불교라는 신행적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를 학문적 입장 혹은 지식 체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불교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³⁰⁾ 따라서 불교교육은 다시 불교의 교육, 불교에 관한 교육, 불교적 교육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본다면 불교 종립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신입생 대상의 불교교육은 불교에 관한 교육과 불교적 교육의 차원일 것이다.

불교에 관한 교육의 목적은 불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 교육 내용은 불교 관련 지식과

28) 김재성, 「불교명상의 심리치료에의 응용에 대한 연구」 『불교연구』 제37집(한국불교연구원, 2012), 174쪽.

29) 박범석, 「불교교육학의 종교교육적 성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서울: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3쪽 재인용

30) 박범석, 위의 글, 4쪽.

체계, 교육방법은 분석과 비교이며, 불교적 교육의 교육 목적은 불교적 심성의 함양, 교육 내용은 불교적 정조와 인식, 교육방법은 통찰과 자각이다.³¹⁾ 즉 불교 종립대학에서 일반 교양강좌로 제시될 수 있는 불교교육은 분석하고 비교하는 강의 방식을 통해 불교관련지식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와 통찰과 자각의 강의 방식으로 불교적 인식전환을 발생시켜 불교적인 심성을 갖도록 하는 강좌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불교에 관한 교육의 구현할 강좌는 불교교육연합회 편 「종교(불교)」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종교교육의 과제와 지표를 이해함으로써 그 지향점이 명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러한 궁극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존재의미와 가치를 실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계 여러 종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민족과 인류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종교학습을 통하여 세계의 중요 종교와 불교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³²⁾라고 불교에 관한 교육에 담겨져야 할 강의내용에 대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교적 교육의 실현을 위한 강좌는 수행과 실천이 핵심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 수행은 “불교 교법을 바로 알아 그 교법대로 실천궁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찾는 마음을 발하여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깨달음을 펼친다고 한다.³³⁾ 불교 수행을 통하여 탐욕(貪)을 영원히 다하고, 분노(瞋)가 영원히 다하고, 어리석음(癡)이 영원히 다한 상태가 바로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인 열반의 상태다. 불교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삼학(三學)으로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의 세 가지에 관한 배움을 지칭한다. 계를 지킴으로써 선정 수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혜를 성취하게 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계를 지키는 것은 열반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고 선정 수행은 지혜를 완성하게 된다.³⁴⁾ 불교 수행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수행법을 삼학의 범주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학신입생들은 입학 한 첫 해 동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불교관련 강좌를 통해 다양한 수행법들을 배우고 익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인생의 참 가치와 참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1) 박범석, 5쪽.

32) 김용표,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성」 『종교교육학연구』제22권(서울:종교교육학회, 2006), 147쪽 재인용.

33) 서세영, 「도덕교육에 있어 불교 수행법의 활용방법」 『윤리철학교육』제12집(윤리철학교육학회, 2009), 102쪽 재인용.

34) 안옥선, 앞의 글, 25쪽.

IV. 나오며

양극화 심화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랜 시간 연구의 주제로 자리매김하며 수없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해법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그 까닭은 양극화가 어느 한 영역의 병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전 영역에 만연한 병폐이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원인 또한 다원적이고 다층적이어서 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의 책임, 기업들의 책임,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책임이 수없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 듯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는 미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과 삶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들의 가치체계와 인생의 목적, 정서적 특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 해 보았다.

이 시대 대학생들을 위해 불교 종립대학에서 시행되어야 할 불교교육은 불교에 관한 교육과 불교적 교육의 이원적인 역할을 잘 구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불교교육을 통해 세상의 가치에 물든 거짓 나를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중요 종교와 불교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교법대로 실천궁행하는 것이 불교 종립대학 학생들을 위한 불교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교교육은 1학기, 또는 1,2학기 듣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단발성의 교과목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불교적 사고체계와 불교적 생활이 ‘짬’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 받은 학생들은 분명 자신들이 살아내야 할 광활한 미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세훈. 「빈곤, 양극화, 그리고 불안」 『항해문화』 (인천 : 새얼문화재단, 2005).
- 구재선 · 서은국.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4호, 2015.
- 김문조 · 박형준. (2012). 「불확실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 제21권, 제2호, 2012.
- 김용표.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성」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 (서울:종교교육학회, 2006).
- 김원식.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제26집, (서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3).
- 김은하 · 이신영. 「여자대학(원)생의 자아분화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한 심리적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13권, 제1호, 2016.
- 김형록. 「고집멸도의 상담 및 심리치료적 이해」 『한국 선학』 제27권, 2010.
- 박광수. 「마음의 본질과 현상의 스펙트럼」 『종교연구』 제66권(서울 :한국종교학회, 2012).
- 박범석. 「육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 교육론」 『종교교육학연구』 제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박범석. 「불교교육학의 종교교육적 성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서울: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서세영. 「도덕교육에 있어 불교 수행법의 활용방법」 『윤리철학교육』 제12집(윤리철학교육학회, 2009).
- 안옥선. 「불교윤리에서 부정적 성향의 제거」 『불교학연구』 제26호, 2010.
- 윤미라. 「유방암 생존자를 위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재철.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9집 제 2호, 2009.
- 임수진.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 12권, 제3호, 2015.
- 정귀연.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체험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성진.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해체」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4호, (진주:사회과학연구원, 2013).
- 정재각.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사회정의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2호, 2006.
- 조준호. 「무명(無明)과 공(空)」 『불교학연구』 제24집, 2009.
- 中村元. 『原始佛教』(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1), pp.80-81.
- Beck, U. and E. Beck-Gernsheim.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

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1-23.

- Kasser, T. (2000). Two versions of the American dream: Which goals and values make for a high quality. Ed Diener & D. R. Rahtz (Eds.),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pp.3-12).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asser, T. (2002). Sketches for a self-determination theory of value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in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123-140).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M. C., Wolfson, "When Inequality Diverge", *The American Economy Review*, 84, 1994, pp.353.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 Basic Books.
-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 Deci, E. L. (1996). All goals a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 7-26). NY: Guilford.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1-65). Orlando, FL: Academic Press.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Canada: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원고접수일 : 2017년 1월 4일 심사일: 2017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0일

연구자소개: 정귀연

- ① 전공 / 소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지도
- ② 관심영역: 심리학, 교육학
- ③ 주요논저: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체험연구
- ④ E-mail: cgy-33@hanmail.net

연구자소개: 김세곤

- ① 전공: 유아교육 / 소속: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아교육과
 - ② 관심영역: 임상교육심리, 신경과학
 - ③ 주요논저: 인간심리의 이해(공저), 미래사회와 교육(공저2016년)
 - ④ E-mail: ksg@dongguk.ac.kr
-

Abstract

The Role and Direction of Newly Entered Buddhist Education in the Era of Bipolarization

Jeong Kwiyeon · Kim Seg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and direction of Buddhist education in the new era of Buddhist churches in the present era when the polarization is becoming more serious.

For college students born and raised in a society where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they looked at the world and looked at the forms of recognition and lifestyle, and found positive effects such as their value system, life purpos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I discussed the role and direction of Buddhist education.

The college students in this age have solved the inconvenience of their own by showing the separation personalization problem with the parent, the problem with the concentration of the internal value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external value, the psychological uneasiness accompanying the social instability To overcome this difficulty, I showed the situation such as excessive preparation for job hunting, adherence to academic history, and mixed roles.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education of Buddhism, which is being carried out at the University of the Buddhism, needs to be structured to better implement the dual roles of Buddhist education and Buddhist education. I can find out the true value of life through the education of Buddhism and dispose of the falsehood that has inflicted on the world's value. I can release the true value of life from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Satori. For this reason, Buddhist education aims to understand the true spirit of the world's important religions and Buddhism, to discover the path of a wise way of life, and to develop human beings who lead the era and demonstrate their practice to that teaching This is important.

In this study, we have studied the role and direction of Buddhist education that meets

the needs of the times, by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education to new entrants to the university.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een explored.

Key words: polarization, freshman, lived experience, Buddhist education, role and direction